“히말라야서 만난 자연 사람 그리고 진리”

리카르 스님의 사진 전시가 11월 4일부터 종로구 사간동 불일미술관에서 열린다. 스님은 히말라야를 품은 네팔, 북인도, 티벳, 부탄 등 고산국가들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왔다.

마티유 리카르 스님 사진전

11월 4일…불일 미술관서
히말라야 주변 여행하며
40년 동안 풍경 담아
전시 강의 수익금 전액 기부

세상은 온통 현란한 것들로 넘쳐난다. 있는 그대로보다는 더 화려하고 더 대단하고, 더 높고, 더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질주에 질주를 거듭한다. 하지만 이 질주가 길어질수록 마음은 공허하고 삶은 늘 불만족이다. 무엇이 진짜인지 또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혼돈의 세상에 ‘나’는 더 이상 존재 가치의 이유를 잃어버렸는지 모른다.

마티유 리카르 스님의 사진은 광활한 히말라야를 담았다. 그곳의 풍경과 사람 그리고 수행자를 렌즈를 통해 보여준다. 그것은 자연이고 우주고 생명이었으며 또 하나의 순수다. 그래서 그의 사진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잔잔한 감동과 조용한 탄식과 자연에 대한 경이와 삶에 대한 희망을 일깨운다.

리카르 스님의 전시가 11월 4일부터 종로구 사간동 불일미술관에서 열린다. 스님은 히말라야를 품은 네팔, 북인도, 티벳, 부탄 등 고산국가들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다. 광활한 풍경은 물론 종교행사와 사원 구석구석까지 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일반 사진작가가 아닌 스님이었기에 가능했다.

그의 카메라는 지구상에 얼마 남지 않은 순수한 자연과 또 그것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담아낸다.

이번 전시는 히말라야, 스승, 사람 세 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초원을 배경으로 걸어가는 말떼, 안개에 휩싸인 히말라야의 절경, 고산지대 마을, 날아가는 새 등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풍광들은 평화롭고 장엄하며 온화하다. 위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은 한 낱 미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일깨워준다.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 일렬로 서서 자유로운 포즈를 취하는 스님들,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미소를 자아낸다. 그들의 순박한 눈빛과 표정에서 흐렸던 마음은 환해지고 우울했던 감정은 일순간 밝아진다. 또한 티벳불교 고승들과 명상수행가들의 표정에서는 세상 걱정근심을 녹여낼 만큼의 안정을 얻는다.

마티유 리카르 스님은 세계적인 명상수행가이자 달라이라마의 프랑스어 통역담당, 세포유전공학자,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사진작가다. 이처럼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스님은 영적 깨달음을 추구하던 자신의 고민과 환희를 히말라야를 통해 담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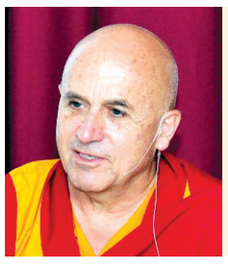
그는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를 여행하기 시작하며 심오한 정신세계로의 탐구를 시작한다. 특히 티벳불교 고승들과 명상수행가들과의 만남으로 스님은 영적 성장을 거듭해 나갔다.

그렇게 그는 히말라야에서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고 티벳, 자신이 수행하던 사원, 그리고 네팔, 부탄, 인도, 티벳 등 히말라야를 품고 있는 나라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40년 동안 사진으로 담아냈다. 이렇게 히말라야 문명을 보존하려는 스님의 노력에 감동한 프랑소아 미테랑 대통령은 그에게 프랑스 국가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그의 작품은 뉴욕, 파리, 페리피낭, 스톡홀롬, 홍콩 등 다양한 도시에서 전시됐다. 그리고 사진집과 전시회, 강연, 인세 수익금은 세계의 굶주린 이웃들을 위해 쓰였다.

한편, 11월 1일 입국 예정인 스님은 ▷2일 좌담회 및 토론, 공동 기자회견 ▷3일 대중강의 ▷4일 명상워크숍, 사진전시회 오프닝 등을 펼친다. (010)9588-5182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마티유 리카르 스님

마티유 리카르 스님은 1946년 프랑스에서 태어났다. 스물여섯 살에 분자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고, 노벨상 수상자인 생물학자 프랑수아 쟈콥의 지도 아래 연구 활동을 하던 촉망받는 과학자였던 그는 서른세 살에 승려가 되었다. 현재 그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불교 전문가가 되어 히말라야에서 기거하며 달라이 라마의 통역, 사진작가, 불교 경전의 번역, 국제구호활동 등을 하고 있다.

옥으로 빚어낸 ‘반가사유상의 미소’

광주시청 장주원 작가 전시

장주원 作 ‘미륵반가사유상’

문화재 옥으로 표현한
기증 작품 50여 점 선봬

녹옥봉황연향로, 다보탑, 반가사유상을 옥으로 재현한 우리 문화재가 광주시청을 찾았다. 광주시는 옥장 장주원 작가의 기증 작품 50여점을 전시한다. 광주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00호로 지정된 옥장 장주원 씨의 작품을 광주시청 상설전시장에서 선보인다.

장 씨는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옥작품 46점을 광주시에 기증했다. 시민들이 한자리에서 문화재를 관람할 기회가 그리 많지는 않다. 제 작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문화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작품을 기증하게 됐다”며 취지를 전했다.

이번 상설 전시에는 작가의 최고 걸작품으로 평가받는 ‘녹옥봉황연향로’ 등 기증품 15점과 선생의 소장품 중 가장 큰 작품인 다보탑과 반가사유상 2점 등 17점이 전시된다.

특히 반가사유상에 대한 장씨의 사랑은 각별했다. 그는 “우리 문화유산의 미적 아름다움을 옥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반가사유상의 미소년 같은 순수한 미소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 희노애락과 미추를 융화시키며 세상의 모든 것을 포용할만한 미소라고 생각한다. 그 미소를 제 작품을 통해 다시 표현해보고자 했다”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시립미술관에서 소장중인 작가의 옥작품 중 이번에 전시되지 못한 작품에 대해서도 앞으로 6개월 단위로 교체, 전시할 계획이다. 한편, 장 주원 작가는 1937년 목포에서 태어나 1960년 옥공예에 입문했으며, 1996년 옥 공예분야 중요무형문화재 제100호로 지정됐다. 특히, 용의 입 안에서 따로 도는 여의주를 깎아내는 환주(環珠) 기법과 ‘고리연결기법’ 등 신비스러운 옥공예 기법은 옥공예 종주국이라 자처하는 중국에서도 아직 사용된 적이 없는 신기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혜숙 기자

“지장경 17680 자에 담았다”

최규일 작품전…10월 17일부터

전각가 현로 최규일 작품전이 10월 17일~23일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본관서 열린다. 작가는 강원도 횡성의 작업실에서 지난 5년간 작업해온 〈지장경〉 17680글자를 65개의 작품에 담았다.

그는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새벽 4시에서 밤 12시까지 하루 꼬박 20시간을 작업에 매진했다. 그에게 있어 전각 작업은 수행과 같은 것이다. 최 씨는 “오랜 시간 불심으로 작업을 해왔다. 금강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보원행원품, 아미타경, 원각경 ‘보안보살장’ 등 불경을 돌에 새기며 나를 닦고 있다”고 전한다.

최씨는 전각을 불심을 담는 가장 아름답고도 위대한 도구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두를 던져 작품에만 매진한다. 문화기획자 강준혁 씨는 그의 작품에 대해 이렇게 평한다. “선생의 전각은 문자를 조형예술로, 도장을 전각예술로, 전각을 판화로 바꾸어 놓았다. 선생의 전각은 이제 더 이상 케케묵은 유물처럼 취급당할 필요도 없으며 산사화나 붓글씨의 여백을 메우는 치장물일 필요도 없다. 달인의 경지에 이른 장인의 손만이 보이지 않는 예술가의 고귀한 영혼을 돌 속에 새겨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최씨는 25년 동안 작업하고 있는 한국의 역사를 고대에서 현재까지 아우르는 작품 ‘코리아 환타지’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앞으로 법화경 2만자를 새겨 넣은 작품도 탄생시키고자 한다.

최규일 작가는 85년 경인미술관 초대전, 독일문화원 초대전(1990년), 국립전통공예관의 초대전(1995년), 리투아니아 빌리니우스미술관, 일본경도 국제교류관, 프랑스 코인아트갤러리 등 국내외의 3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전시를 통해 우리 전각을 세계에 알려왔다. 011-9733-6600

정혜숙 기자

최규일 作 ‘지장경’ 전각 일부

신라시대 여성의 삶과 문화

국립경주박물관 강좌 진행

요석공주와 원효, 아사달과 아사녀의 사랑은 시대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성사적 관점에서 불교미술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국립경주박물관은 ‘신라시대 여성의 능묘와 부장품’이라는 주제로 문화강좌를 진행한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박물관 수묵당에서 진행되는 ‘박물관 여성 문화강좌’는 12월 1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강좌는 ‘신라시대 사랑이야기’를 비롯해 여왕들의 삶과 신라시대 여성들의 생활상을 두루 살필 수 있는 강좌로 진행된다.

강좌는 ▷10월 16일 신라시대 사랑 이야기-요석공주와 원효, 아사달 아사녀 설화(강석근 동국대 교수) ▷10월 23일 선덕여왕을 비롯한 신라의 여왕 이야기 조경철 연세대 교수) ▷10월 30일 신라시대 여성들의 이야기(김정숙 영남대 교수) ▷11월 6일 여성사적 관점의 불교미술 (임영애 경주대 교수) ▷11월 13일 역사 속 여성들의 화장 문화(이지선 화장박물관 학예연구사) ▷11월 20일 조선시대 규방문화-목공예를 중심으로(황지현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11월 27일 조선시대 왕실정치와 왕비들의 생애(윤정란 숭실대 교수) ▷12월 4일 ‘특별강좌’ 경주 여성으로서의 삶-경주의 연극을 이끌다 (이애자 경주시립극단) ▷12월 11일 ‘특별강좌’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법(이왕재 서울대 의과대 교수) 등으로 진행된다.

(054)740-7536